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 지난 6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기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이 지난 6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과위)는 '91년 3월 헌법 제127조에 의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을 근거로 설치되었고, 올해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해 자문회의의 체제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제8기 자문위원을 새로

타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과위는 참여정부가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지향하는바 과학기술정책을 민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난 '03년 6월부터 운영체제와 기능에 따른 개편이 추진되어 이번 6월에 구성된 것.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게 구성하게 되었다.

국과위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 등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과 국가과학기술분야의 재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

30명의 자문위원들이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 기초기술회의, 공공기술회의, 산업기술회의, 과학기술기반확충회의 등의 5개 분과로 나누어 정책을 연구 이외에도 각 주제별로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산학연의 인사를 지명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정책이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분과를 중심으로 좋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심층적인 토론과 실증적인 검증을 거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장은 '참여정부가 과학기술 입국을 중요시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국과위 활동을 통해 발명정책과 여성 발명가들 위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한 여름

올 여름, 특히 조심하세요!

여름철 건강을 노리는 대표적인 질병인 냉방병, 배탈·설사, 자외선에 대한 대처법을 소개한다.

냉방병 긴팔 옷 입고 자주 움직여야

이유 없는 두통, 전신피로, 소화불량, 설사, 복통, 근육통, 생리통, 부종 등에 시달린다면 냉방병을 의심해볼만 하다.

실내의 온도차가 큰 곳에 오래 있으면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을 초래해 호르몬 분비와 스트레스 조절 반응에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 또 냉방기의 제습 기능으로 습도가 낮아지면 코 점막 등을 통해 각종 유해균이 잘 침범한다. 특히 대형건물은 레이오넬라균 등 각종 병원균과 유해물질이 밀폐된 공기조절장치를 통해 순환되므로 냉방병에 쉽게 걸린다. 냉방병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냉방기구 사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긴팔 옷을 입어 찬 공기가 피부에 닿지 않게 하고 틱틈이 몸을 움직여 근육의 수축을 막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배탈·설사 증세 가벼울 땐 물 많이 마셔야

여름엔 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이때 구역질, 구토, 고열 같은 증상도 나타나는데 이유는 얼음 등 찬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기 때문.

증세가 가벼울 때는 항생제나 지사제를 먹기 보단 물을 많이 마시고 안정을 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며 설사가 심한 경우엔 하루 이틀 정도 금식하고 그 뒤엔 죽을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루 이틀 조심하면 인체 면역기능에 의해 수일 내 대부분 저절로 회복된다. 여름철 배앓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손을 깨끗이 씻고, 물과 음식은 반드시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한다. 또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곧바로 먹어야 하며, 얼음이나 찬물 등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다.

피부 손상 감자·토마토·레몬 팩 마사지로

자외선 손상을 받은 피부는 각질층이 파괴돼 거칠어지므로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 방법은 물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을 가급적 많이 섭취하고, 스킨과 로션을 평소보다 많이 발라준다. 한편 바캉스를 다녀와 피부가 화끈거릴 땐 가제로 얼음찜질을 해주면 효과적이고 찜질 후엔 티슈로 물기를 모두 닦아내야 한다. 감자나 토마토, 레몬 등을 갈거나 즙을 내서 자외선 손상을 받은 피부에 팩을 해주는 것도 좋다.

특허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정 체결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지난 7월 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원장 양규환)과 국가생명공학 연구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력 협정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 출원되어 공개된 유전자 서열 데이터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내 국가 유전체 정보센터(NGIC)에 제공하고 연구 개발에 필요한 각종 특허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특허 심사시 국가 유전체 정보센터의 통합 유전자 서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에 심사관들이 참여하는 등 양 기관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허청은 매년 1천여 건에 달하는 유전자 염기서열 포함 특허를 심사하기 위해서 '00년부터 생명공학 특허서열 검색시스템(BIOPASS)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 이 시스템은 국내 출원된 데이터만 보유하고 있어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는 인터넷 상의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열정보를 추가로 검색하여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협력을 통해 이 분야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Pay attention to the patent information, be free from your competi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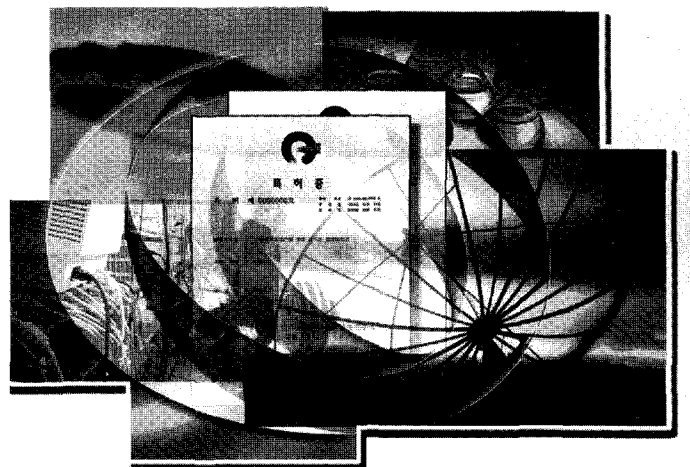
“한국특허정보원은 우리나라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특허청 산하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특허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특허정보조사 서비스
- 벤처기업인증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서비스
- 특허 map작성 서비스
- TPDB(Topical Patent Database)서비스
- 정보가공 서비스
- 상표조사 서비스
- 기술가치평가 서비스
- IP컨설팅

- KIPRIS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업무수행
- 특허문서 전자화 업무수행
- 특허청 데이터관리 센터 운영
- KPA(한국특허영어문조목) 발간
- 국제특허분류(IPC) 부여 사업수행
- 특허청 특허고려센터 운영
- 특허청 상표조사분석사업 수행



기고문

상표권에 대한 권리 범위는?

백승준(백승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장)



각 지역에는 행정구역별로 해당 구역 내에 위치한 상가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역정보 잡지인 상가 안내 책자들이 발간되어 배포되고 있다. 이같은 지역정보 잡지들 간의 상표 분쟁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의 북구 지역 내에서 네 명의 청년들이 5백만 원씩을 투자하여 **상가안내**란 지역 정보 잡지를 발간한 지 채 몇 달이 지나기도 전에 타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경고장을 받게 되었다. 그 내용은 '귀사는 본인의 **상가안내**란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5대 중앙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고, 3천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며 '상가 안내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두 사람도 이미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그 청년들은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도 않은 '상표권 침해'라는 장벽에 의해 사회 진출의 길이 가로막혀 사업의 의욕을 상실한 채, 필자에게 하소연을 해왔다. 필자는 그들이 사용하는 상표가 상대방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상가안내란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잡지'와 관련하여 '상가안내'의 문자 부분이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표장에 지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가안내**란 상표에서도 '상가 안내'라는 문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양 상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가 안내'라는 문자 부분을 제외하고 도형만을 분리하여 관찰해 보면, 양 상표의 도형부분은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가안내**란 상표는 등록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가안내**라는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며, 상기 등록상표는 **상가안내**라는 상표의 도형과 문자의 구성 중에서 부분 도형의 식별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특허청에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청년들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게 되었고, 필자의 설명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상표 분쟁 사례는 양 당사자 모두 상표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비롯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허기술개발의 길잡이 '특허지도(Patent Map)'

한국발명진흥회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선도를 위해 정부 기술개발전략수립에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중소·벤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기여하고자 특허지도(Patent Map, 이하 PM)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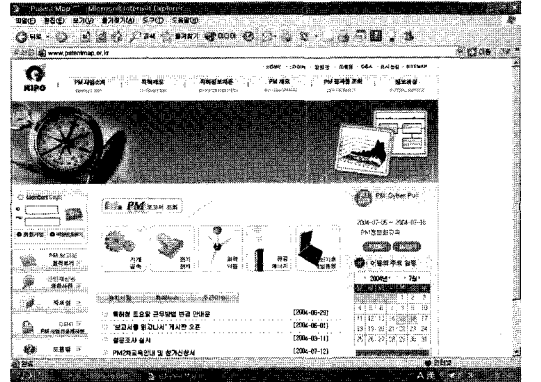
PM이란 특허기술정보를 분야별로 분류·분석·가공·정리하여 필요한 기술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정보 해석서를 뜻하며, 이렇게 작성된 PM은 산업과 과학기술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대기업에 비해 정보수집 능력이 불충분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손쉽게 특허기술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시장동향이나 상품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자료가 되며, 특허기술의 핵심포인트 및 기술 상호간의 연계성도 파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 바로 PM이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PM 작성

한국발명진흥회는 첨단기술·성장유망·벤처기술·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우선지원을 통한 국가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산·학·연·관에서 연구개발·개발방향을 제공함에 따른 중복 투자방지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확대도모 및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00년부터 매년 산업군별 24개 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총 96개 과제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약품, 화학, 농림, 식품,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전문평가기관과 특허청 관계자,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이 작성하게 되며 이렇게 작성된 PM은 연말에 CD-ROM으로 만들어져 국립대학이나 연구소, 정부부처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전달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행된 과제들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기업에는 수행연구원을 현장에 파견함으로써 직접 기술지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신기술 동향조사 발표회와 연계된 세미나도 개최한다. 또한 각 분야별로 수행된 과제들은 3년을 주기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PM 보고서는



▲ PM 전문 홈페이지(www.patentmap.or.kr)에서는 매년 24개 산업별 PM 과제에 따른 보고서와 특허자료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PM 전문 홈페이지(www.patentmap.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된다.

PM 사업 중 하나로 중소·벤처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진단'도 있다. 이는 진단과제별 총 소요비용의 25%만 의뢰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보조하여 이루어지므로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분야의 기술과제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종합적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PM 사업은 기업이나 발명가들로 하여금 특허기술에 대한 연구 트렌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영 방향이나 투자 규모, 연구 테마 등을 결정하는데 뒷받침 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한국발명진흥회 PM 사업의 한 관계자는 '매년 기업, 연구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지식기반 핵심기술에 대한 선호도 및 분포도를 조사하여 차기년도 PM 대상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특허기술 정보에 대한 분석과 정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기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PM 사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2004 대한민국과학축전'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 문화축제인 '2004 대한민국과학축전'이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문화재단·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최, 총 1백40여 단체·기관의 4백여 프로그램을 5천여평 전시공간(태평양·대서양관)에 가득 채웠다. 특히 국제과학영상전, 청소년 이공계 진로안내엑스포, 근대기상 100주년 기념 기상축전 등 그 어느 때보다 행사의 규모가 크고 내용이 알찬 행사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산·학·연을 아우르는 첨단 과학기술을 로봇기술·유비쿼터스·우주항공·생명공학·문화산업 등 5개 주제로 나눠 전시, 우리 과학기술의 현재와 10년 후의 세상을 만들어갈 과학기술들이 전시관 곳곳에 자리잡은 것이 특징.

무엇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위험지역 작업로봇인 '롭헤즈 DT3(KIST)',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격조정인공지능로봇인 '누룩(Nurot)', 한국전기연구원의 '전력선을 활용한 컴퓨터통신망'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과학탐구관에는 30개 과학관련 민간단체(NGO)와 7개국의 과학기관과 기업들이 1백개 부스를 마련해 과학체험마당을 열었다. 이 관에서는 우주 전시(영국), 열전달 및 전기와 자기의 원리(이스라엘), 갈릴레오 공방(일본), 차이니스 Knot·중국) 등 해외 과학교육자와 학생들이 참가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이외에도 과학예술놀이터와 청소년 이공계 진로 안내엑스포, 국제과학영상전 등이 함께 열렸고, 태풍 '매미'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체험하고 기상관측기기를 만들어 보는 등의 '근대 기상 100주년 기념 기상축전'에서도 풍성한 볼거리가 마련되었다.

삼성전자 잇단 특허소송 '골머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특허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삼성전자 및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미국 위스콘신대 동문연구재단(WARF)으로부터 반도체 제조공정과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지난 4일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이 캐나다 반도체회사인 모사이드가 제기한 삼성전자와의 D램 특허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재하는 등 특허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모사이드는 지난 2001년 9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D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미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해, 이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번 제재 결정은 모사이드 측이 삼성전자가 지난 4월 6일 이번 재판의 사실확인 단계에서 법률에 정해진 것과는 달리 자사에

대한 문서전달을 거부했고, 사건 관련 이메일 증거들을 폐기했다며 이에 대해 제재를 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모사이드의 증거수집 노력 및 제재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것 등을 포함한 일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제재조치 결정은 올 3월 특허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판결이 모사이드에 불리하게 나오자 이 결과가 최종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모사이드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소송전략상 제기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 이번 결정은 법원 행정판사의 1차 결정이고, 삼성전자는 이번 행정판사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즉시 본안 판사에 항소할 것이며, 이번 판결이 이같은 항소를 통해 반복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